

문체실험과 형식실험 동반한 영원한 현역의 고전미 넘치는 소설미학
김원일 소설집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 선정기

<출판저널>이 지난해 2월 재창간하면서 새롭게 도입, 연중기획으로 전개하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작업이 2004년 2월호로 1주년을 맞는다. <출판저널> 기자들의 시각만으로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출판문화계의 격려와 우려를 함께 받아온 이 제도는 구랍 '2003년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로 전인권 씨의《남자의 탄생》을 선정한 바 있다.

이같은 결실을 바탕으로 <출판저널>은 이 기획의 2년차 첫 선정회의를 지난 1월 13일 열었다. 선정 후보에 오른 책은 조주은의《현대 가족 이야기》, 임계순의《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박노자의《하얀 가면의 제국》, 김형민의《썸데이 서울》, 최윤정의《미래의 독자》, 임철규의《눈의 역사 눈의 미학》, 신경숙 구분창의《자거라, 네 슬픔아》, 정준영의《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 분과의《고대로부터의 통신》, 김원일의《물방울 하나 떨어지면》 등 모두 10권이였다.

10권의 저작 중 기자들은 조주은의《현대 가족 이야기》, 임철규의《눈의 역사 눈의 미학》, 김형민의《썸데이 서울》, 신경숙 구분창의《자거라, 네 슬픔아》, 김원일의《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에 각별히 주목했다. 《현대 가족 이야기》는 임금투쟁이 중심을 이룬 우리 노동운동사의 궤적에서 한발 비껴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실제 삶과 결부시켜 담론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작업에 나선 조주은 씨와 기획집단 퍼스웹에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은 눈을 통한 인식작용의 메커니즘, 특히 인식의 한계와 모순 등에 대해 동서양을 넘나들며 분석한 학문적 깊이와 사유체계가 정연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썸데이 서울》은 서민들의 부박한 삶을 어루만지는 경쾌한 글솜씨와 미시적인 그물 속에 우리 삶을 모두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디지털

적인 미학을 가진 책으로 손색이 없었다. 또한《자거라, 네 슬픔아》는 예술가들의 협업이 낳는 아름다움의 극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진작가와 소설가가 어떻게 평면공간을 즐겁게 주유舟遊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들, 저마다 캐릭터가 뚜렷한 저작들 중에서 기자들이 마지막에 택한 저작은 중진 작가 김원일 선생의 소설집《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이였다. 문단 데뷔 이후 장편소설을 비롯 중단편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작가생활을 해오면서 영원한 현역으로 불려온 선생은 이번 작품집에서 고단한 문체실험과 형식실험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고전에 가까운 중단편 소설의 미학을 고스란히 내보였다는 점에 기자들은 동의했다. 또한 선생이 표제로 내세운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이 내포하고 있는 중의에 걸맞게, 한 방울의 물이 어떤 파문을 그려내고, 종내는 해일 못지않은 파문을 낳는다는 진실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문명사회의 소외자, 혹은 국외자의 삶을 주 대상으로 한 점은 작가의 눈길이 어느 곳에 모아져야 하는가를 경각하는 우리 문단의 목탁조라는 데도 동의했다. 상상력이 승한 시대, 컴퓨터로 적어내다시피함으로써 삶의 부피가 만져지지 않는 소설, 경박하고 말초적인 소설들에 큰 울림으로 맞서는 김원일 선생의《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을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선정하면서 후보도서를 저작한 필자들에게도 위로와 경의를 보낸다.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은 <출판저널>이 재창간된 이후 소설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

